

참고 1.

취급시기별(vintage)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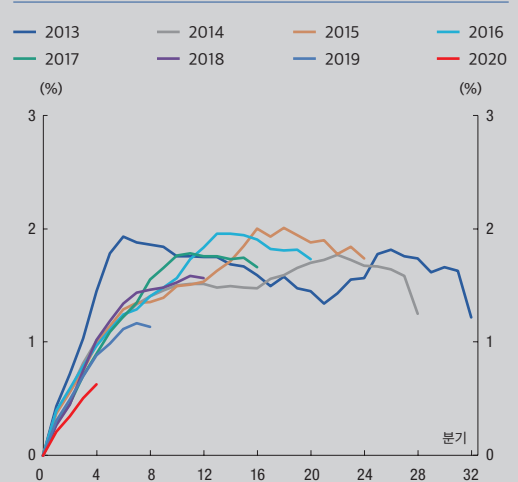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3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지속해오다 2018년 전후 소폭 상승 전환 하였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에는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및 적극적인 금융지원 조치¹⁾ 등에 힘입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이러한 낮은 연체율은 차주의 실질적인 신용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소득 감소, 생계형자금 부족 등으로 취약부문의 잠재부실위험이 커졌을 수 있고 향후 금리 상승 및 각종 지원·유예조치 종료시 상환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들 차주의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취급시기별(vintage) 연체율(이하 '빈티지 연체율'²⁾ 분석³⁾을 통해 기간 경과에 따른 연체율의 변화를 부문별로 점검하고 가계대출에 잠재된 부실위험의 정도와 향후 연체율 움직임의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빈티지 연체율의 추이 및 특징

각 연도별(13~20년) 대출취급시점 이후 빈티지 연체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빈티지 연체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상환 등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드는 반면 연체금액이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특성을 보였다. 다만 초기 1~2년간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일정 시점(2~4년) 경과 후부터는 상승속도가 크게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빈티지 연체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시산

우리나라 가계대출에 나타난 빈티지 연체율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빈티지 곡선이 전년도에 비해 하방(상방)에 위치

- 1) 기준금리 인하(1.25%→0.50%, 20년 3월 16일 및 5월 28일 -0.75%포인트),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고금리 비은행권 대출의 저리 대출로의 전환·채무조정 및 개인연체채권 매입 등 재기지원 강화(20년 4월 이후), 긴급 재난지원금 및 고용안정지원금 등 각종 소득지원(20년 5월 이후), 소상공인 대상 신규자금 공급(대출보증 포함)·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20년 2월 이후) 등이 시행되고 있다.
- 2) 통상적인 연체율은 취급시기가 다른 여러 대출을 모아서 산출하는 반면, 빈티지 연체율은 전체 대출을 취급시기별로 분류하여 각각 산출한다. 빈티지 연체율 곡선을 통해 대출취급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체율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며 특히 동 지표가 향후 연체율 경로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 및 IMF 등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 3) 이하에서는 가계부채DB에 수록된 차주별 대출 및 연체(NICE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 연체자료) 이력정보를 활용하여 빈티지 연체율 통계를 시범적으로 편제해 보았다. 빈티지 곡선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입시기, 대출잔액 변동, 만기연장(대출 보유이력), 연체발생 및 지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차주별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먼저 분기별 빈티지 연체율을 산출한 다음 이를 연간 단위로 시산하였다. 다만 통계자료의 제약 등으로 빈티지 분석은 2013년부터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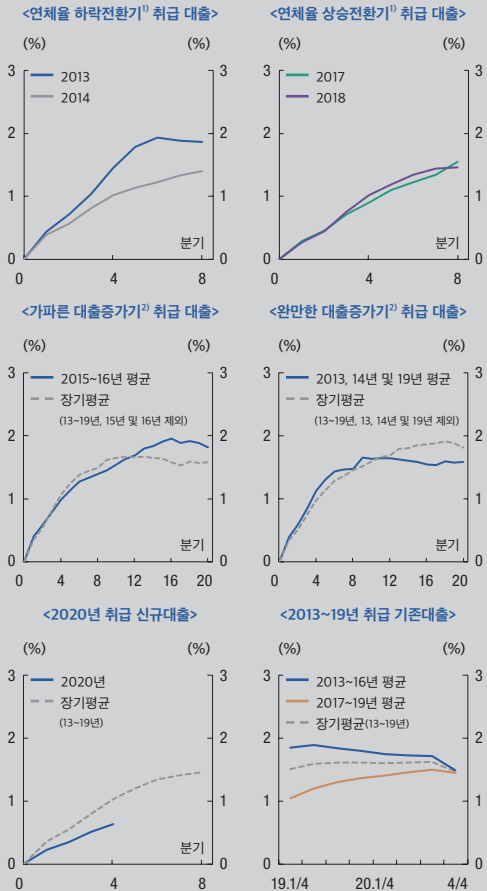
하면 대체로 신용리스크가 감소(증가)하는 양상으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의 하락(상승)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전체 연체율의 하락 또는 상승 전환 시기⁴⁾에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빈티지 곡선이 2013년에 비해 크게 낮아져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에는 빈티지 곡선이 2017년보다 소폭 높아져 연체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현재 2020년 빈티지 곡선은 2019년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② 가계대출이 가파르게(완만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취급된 대출의 빈티지 연체율은 상승 추세가 더 길게(짧게)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수준을 높이는(낮추는) 모습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2015~16년⁵⁾에 취급된 대출의 빈티지 연체율은 대출금액이 큰 폭 증가한 초기에는 장기평균을 하회하지만 3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비교적 낮았던 2013~14년 및 2019년에 취급된 대출의 빈티지 연체율은 3년 이내에 장기평균을 웃돌다가 이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2020년에 취급된 신규대출의 경우 초기 4분기 동안 빈티지 연체율이 2013~19년에 취급된 기존대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대출의 빈티지 연체율(13~19년 장기평균)도 지난해 4/4분기중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각종 조치들(금리 인하, 원리금상환유예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차주의 부실위험을 이

연시키면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을 낮추는⁶⁾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빈티지 연체율의 주요 특징



주: 1)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상승) 전환하였던 시기

2) 가계부채 규모가 가파르게(완만하게) 증가하였던 시기

자료: 한국은행 시산

4)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5%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2013~14년중 하락 전환(13년 2/4분기말 2.4% → 14년 4/4분기말 1.7%), 2017~18년중 소폭 상승 전환(17년 3/4분기말 1.0% → 18년 4/4분기말 1.1%)하였다.

5)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 증가율을 보면, 2015~16년에는 10% 이상(15년 10.9%, 16년 11.6%)을, 2013~14년 및 2019년에는 절반 수준인 5% 내외(13년 5.7%, 14년 6.5%, 19년 4.1%)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가계부채 규모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영향 등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20년 +127.1조원, 15~16년 평균 +128.6조원). 이에 따라 위기대응 조치 효과 등으로 크게 낮아져 있는 2020년 취급 신규대출의 빈티지 곡선이 2015~16년 사례처럼 향후 장기간에 걸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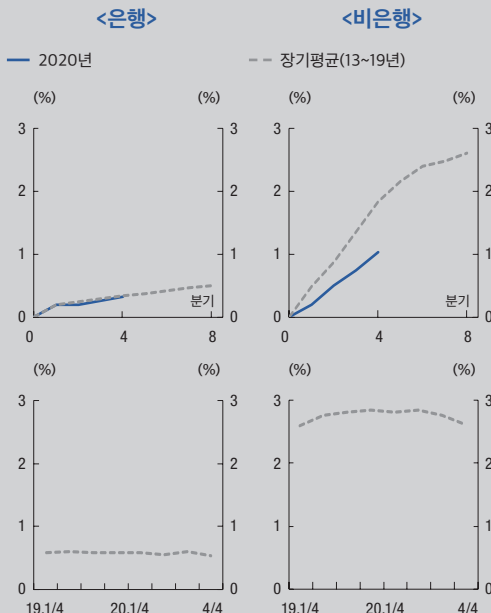
6) 코로나19 이후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포인트 하락(19년 4/4분기말 1.1% → 20년 4/4분기말 0.9%)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부문별 빚티지 연체율 상황

코로나19 이후 빚티지 연체율의 변화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차주 특성(업권, 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라 이를 세분화하였다. 2020년 취급 신규대출과 기존대출(13~19년 장기평균 기준)의 빚티지 곡선을 부문별로 비교·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업권별로 보면, 그간 은행에 비해 높은 연체율 수준을 보여왔던 비은행 차주의 경우 2020년 취급 신규대출의 빚티지 연체율이 장기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2013~19년 취급 기존대출의 빚티지 연체율도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은행권에 코로나19 관련 조치들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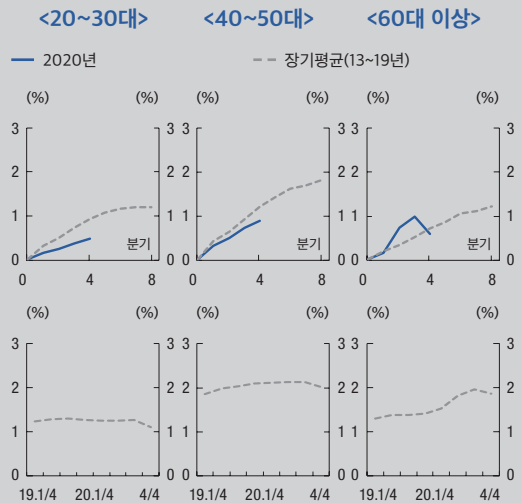
업권별 빚티지 연체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

② 연령대별로는 빚티지 연체율이 대체로 저연령층 차주일수록 장기평균에 비해 더 낮아지는 모습이다. 20~30대 차주의 경우 2020년 취급 신규대출의 빚티지 연체율이 장기평균보다 크게 낮았으며 2013~19년 기존 대출의 빚티지 연체율도 여타 연령대 차주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 차주의 경우 이들 2가지의 빚티지 곡선 모두 가파른 오름세⁷⁾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 하락 전환하는 양상이다.

연령대별 빚티지 연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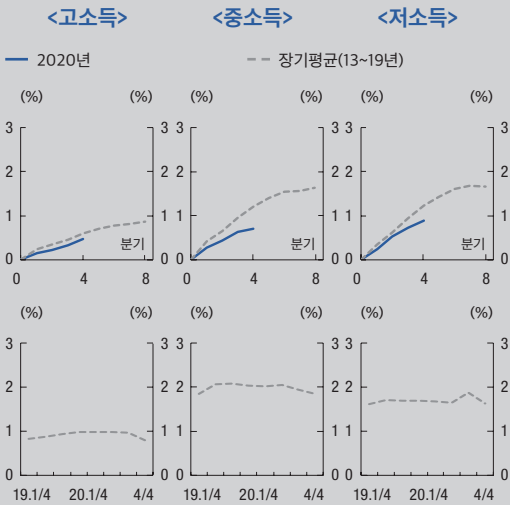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시산

③ 소득수준별로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2020년 취급 신규대출의 빚티지 곡선이 장기평균선을 하회하고 2013~19년 기존대출의 빚티지 연체율도 코로나19 이후에는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소득자에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으며, 저소득자의 경우는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2013~19년의 빚티지 곡선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

7) 특히 이러한 빚티지 곡선의 움직임은 60대보다 70대 이상 차주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70대 이상의 경우 소득대비 부채 수준이 4배(20년 4/4분기말 LTI 378.4%)에 달하는 등 다른 연령대(60대 221.9%, 40~50대 223.2%, 20~30대 228.9%)에 비해 훨씬 높아 채무상환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으로 소득 감소가 연체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직접적인 피해가 70대 이상에 집중되었고 노인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일자리 사업도 대면서비스 성격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감염병 확산이 다소 진정되면서 3/4분기 이후 점차 재개되는 등 취약계층의 소득 변동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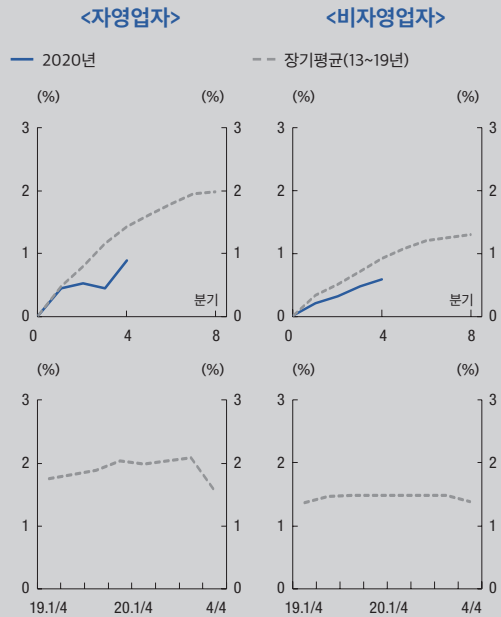
소득수준별¹⁾ 빚티지 연체율



주: 1) 고소득 상위 30%, 중소득 30~70%, 저소득 하위 30%
자료: 한국은행 시산

④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빚티지 곡선은 2020년 취급 신규대출 및 2013~19년 기존대출 모두 일반 가계대출자(비자영업자)에 비해 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당국의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집중되었던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자영업자¹⁾ 빚티지 연체율



주: 1)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

잠재부실위험 정도 및 연체율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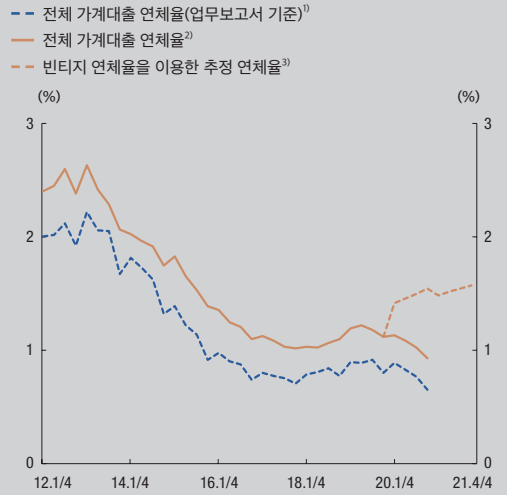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빚티지 연체율은 자산가격 상승 등의 영향도 있으나 금리인하를 비롯한 각종 위기대응 조치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장기평균 수준보다 크게 낮아져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의 하락세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들로 인해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부실위험이 어느 정도이고 향후 연체율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가능해 보기 위해 상기 빚티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2020~21년중 연체율 수준을 추정⁸⁾해

8)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취급된 신규대출의 빚티지 곡선이 장기평균 수준으로 복원되고, 코로나19 관련 조치 시행으로 하락세를 보였던 기존대출의 빚티지 곡선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총대출을 취급시기별로 분해하고 각각의 빚티지 연체율, 대출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을 추정하였다. 보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체율은 2012년 이후 금융기관 업무보고서로 집계되는 연체율 통계와 비교할 때 약간의 수준 차이가 있으나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았다. 추정 결과, 2020년중 연체율은 현 수준보다 0.3~0.6%포인트 정도 더 높았을 것으로 시산되었다. 이는 빈티지 곡선이 코로나19 이전(13~19년 장기평균) 수준으로 복원된다는 가정하에서 추정된 값이므로 만약 코로나19에 따른 신용위험이 과거 장기평균보다 더 커졌다면 추정 연체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⁹⁾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2021년중 연체율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시산되었으나,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신용위험도 크게 낮아져 추정 연체율이 예상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각종 금융지원 조치 종료시 실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기관은 현재 드러난 연체율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총당금을 적립¹⁰⁾하는 등 대출부실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은행 차주, 20~30대 차주 및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빈티지 연체율을 이용하여 추정한 가계대출 연체율 경로



주: 1)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집계 연체자료 기준(1개월 이상 연체)
 2) 차주별 NICE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 연체자료 기준(1개월 이상 연체)
 3) 각 연도별 빈티지 곡선이 장기평균(13~19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는 가정 하에 분기별로 추정
 자료: 한국은행 시산,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9)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지수(대출행태서베이 결과, 분기평균)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 2020년은 22로 2013~19년 장기평균(18)을 4만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회사, 상호금융조합 및 생명보험회사 기준, 대출잔액 가중 분기평균) 취급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지수도 2020년 25로 장기평균(13~19년 18)보다 7만큼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3~19년중 신용위험지수와 가계대출 연체율 간의 관계 등을 감안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신용위험 상승으로 인해 2020년 추정 연체율은 0.1%포인트(추정 모형의 회귀계수 0.0118에 13~19년 장기평균 초과 지수증가분 6을 곱한 값)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위험지수를 고려한 가계대출 연체율 추정 모형

설명변수	신용위험지수	기준금리	가계신용증가율	주택매매가격지수	코스피지수	상수항
회귀계수	0.0118***	0.4146***	-0.0206*	-0.0515***	-0.0002*	5.8744***
(p-value)	(0.0003)	(0.0000)	(0.0669)	(0.0000)	(0.0722)	(0.0000)

주: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분석대상기간은 2009년 1/4분기 ~ 2019년 4/4분기

10) BIS(21년 5월)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출 확대로 순이익이 늘어난 각국 대형은행들은 코로나19 위기로 높아진 신용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충당금 추가적립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